



# ‘괴물용병’ 레안드로 초반기세 무섭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라이트 공격수 레안드로 다 실바(23·사진)가 일찌감치 최고 용병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시즌 초반이지만 다른 팀 용병들과 대결에서 잇따라 승리해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것.

레안드로는 27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LIG와 경기에서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의 프레디 윈터스를 압도하는 위력을 떨쳤다.

208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고공강타를 앞세워 양팀 최다인 30점(블로킹 3득점)을 뽑으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208cm 장신 공격

타의 추종 불허

팀 공격점유율 61%

키 194cm이지만 탄력이 뛰어난 윈터스도 LIG에서 가장 많은 17점을 올렸지만 레안드로가 코트를 사이에 둔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레안드로는 지난 24일 현대캐피탈과 그랜드캐피탈전에서 지난 시즌 코트를 평정한 ‘특급 용병’ 손 루니와 대결을 승리로 장식한데 이어 두 경기 연속 다른 팀 용병을 제압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레안드로는 다음 달 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대한항공의 브라질 출신 용병 보비와 맞붙을 예정이지만 한 경기 평균 득점이 20점 미만인 보비보다 한 수위라는 평가다.

레안드로의 이날 공격력은 프로배구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49점)을 세웠던 현대캐피탈과 그랜드캐피탈에서의 활약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석을 15개나 저질렀고 공중에서 때린 스파이크가 상대 센터진의 손에 걸리



면서 공격 성공률은 38.24%로 낮았다. 하지만 팀내 공격 점유율은 61.26%로 매우 높았고 이날 고비였던 4세트 중 반부터 터진 그의 스파이크는 단연 돋보였다.

특히 레안드로가 피말리는 접점이 펼쳐진 현대캐피탈과 경기보다 연타를 많이 쏘는 등 몸을 푸는 듯한 모습으로 이같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도 경기 직후 “레안드로는 경기와 상대에 따라 열심히 할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걱정”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레안드로가 5개월 넘게 ‘컴퓨터 세트’ 최태웅 등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한국 배구에 빠르게 적응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박진표기자 lucky@



#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 ‘AG 패배’ 설욕 다짐

내년 1월 카타르서 올림픽팀 초청대회 출전

6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21일부터 3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8개국 올림픽축구팀 초청대회에 출전해 이란, 이집트, 벨로루시와 맞붙는다.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영문 일간지 ‘패닌솔라’와 카타르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회 조 편성은 A조에 카타르,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B조에 한국, 이란, 이집트, 벨로루시로 짜여졌다.

내년 2월 말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 2차 예선을 갖는 한국은 지난 11월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2무)을 치렀으나, 이 대회가 본격적인 발판을 알리는 첫 이벤트다.

이 대회에는 우승 10만달러(9천300만원) 등 총상금 22만 달러(2억460만원)가 걸려있다. 한국은 최근 국가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 대결에서 이란에 연달아 졌지만 올림픽팀 역대 전적에선 2승1무로 앞서있다.

아프리카 전통 강호 이집트와는 A매치 전적 5승6무4패로 백중세. 벨로루시와는 한 번도 대결한 적이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이집트 27위, 이란 38위, 벨로루시 70위로 다 만만찮은 팀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 ‘아시아 정벌’ 나선다

내년 3월 AFC 챔피언스리그 참가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성남일화와 전남 드래곤즈가 각각 베트남, 태국팀과 첫 경기를 치른다.

2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K-리그 우승팀 성남은 내년 3월7일 대회 조별리그 예선 F조 첫 경기를 비교적 약체인 동남 톨안과 홈 경기로 시작하고, FA컵 우승팀 전남은 방콕대학(태국)과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아시아 정벌에 나선다.

성남의 예선 2차전은 같은 달 21일 올케 중국 C-리그와 FA컵을 휩쓴 산둥 루닝과 원정경기로 치르며, 3차전(4월11일)은 2005~2006 호주 A-리그 우승팀인 애들레이드 FC와 원정경기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예선 7개 조에서 각 조 1위 팀만 8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성남으로선 2, 3차전 원정이 예선 통과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F조에 속한 전남은 아레마 말랑(인도네시아),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와 홈에서 2, 3차전을 벌인다.

조별예선은 3월7일 첫 경기가 벌어지며 5월23일까지 팀당 총 6경기를 치르게 된다. 각 조1위 팀만이 8강에 진출한다. 아직 경기 시작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것이 페이드 어웨이 슛 포틀랜드 트래일 블레이저스의 재밌 짝이 28일 포틀랜드 로즈가든에서 열린 뉴올리언스/오클라호마 시티 호네츠와의 미 프로농구(NBA) 정규시즌 경기에서 페이드 어웨이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포틀랜드가 100-8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29일(금)

▲프로농구(KCC-KT&G)(18:50·X-ports)

30일(토)

▲NBA(뉴저지-마이애미)(09:30·MBC ESPN)

▲최요삼 세계타이틀전초전(12:50·SBS 스포츠)

▲프로농구(LG-전자랜드)(14:50·X-ports)

하나투어 HANATOUR

# 2007년 謹賀新年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福 세계가 인정한 하나투어를 만들어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글로벌 여행종합그룹으로서 세계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광 주

반도관광 (대표:선정식) [501-024] 광주 동구 금남로4가150번지 ☎ 062-223-3032

하나투어세정아울렛점 (대표:서찬주)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1326 서정아울렛 3층 ☎ 062-464-8000

이미트 관광점 (대표:김진일) [500-080]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8-30미트 1층 ☎ 062-945-7500

롯데마트점 (대표:민정재) [501-024] 광주 동구 금남로4가150번지 ☎ 062-973-9113

하나항공여행사 (대표:김한숙) [501-700] 광주 동구 금남로3가1-11번지 하나로 빌딩 1F ☎ 062-419-2000

유니버시티여행사 (대표:이점상) [500-04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704-3 ☎ 062-522-2255

모든나라여행사 (대표:박승희)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351-7 2층전남대정문앞 ☎ 062-521-2100

가림여행사 (대표:정상준) [503-080] 광주 남구 봉선동497-26 3층 ☎ 062-653-5250

신세계이미트점 (대표:윤기주) [501-08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12-13광주신세계미트점 ☎ 062-360-0166

남해관광 (대표:박항식) [501-025] 광주광역시 서구 금남로4가150번지 ☎ 062-225-5544

송광여행사 (대표:나승재) [502-827] 광주 서구 차림동 266-192송광상무빌딩 7부리 ☎ 062-383-1133

삼성항공여행사 (대표:심재훈) [500-110] 광주 북구 문흥동1002-1 (조흥은행3층) ☎ 062-261-0088

이미트등광주점 (대표:김용식) [501-080] 광주 동구 개령동100-11 이미트등광주점 1층 ☎ 062-529-7222

하나월드 (대표:김기문)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59번지 2층 ☎ 1577-0658

## 전 남

초원여행사 (대표:서조원) [530-390] 전남 목포시 상동1134 ☎ 061-242-2000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 여행전문가와 상의하세요~